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 곡성 장미축제 막 오른다

내일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세계장미축제 뮤지컬 콘서트 공연·로즈 갈라쇼 등 다채 콘텐츠 차별성 인정... 전남도 대표축제

형형색색의 장미꽃들이 향기를 뿜으며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17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의 “WE THE ROSE”를 주제로 정했다. 특히 축제장을 섬진강기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섬진강동화정원, 곡성어린이도서관, 군민회관, 갤러리 107 등으로 확장하고 지역민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섬진강기차마을은 향기로운 장미가 개화를 시작하면서 5월의 맑은 하늘과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7만5000㎡의 장미정원은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유럽 등 각국에서 온 세계 명품장미를 가꾸는 손길로 분주하다.

이번 축제는 별도의 개막식 없이 관광객 모두가 ‘그대 모습은 장미’ 노래에 맞춰 신나고 즐겁게 함께 하는 뮤지컬 기획 공연으로 시작된다. 곡성군립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곡성 출신 세계적인 바리톤 김기훈의 특별초청 공연이 개막 무대의 시작과 마무리를 맡아 축제 열기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장미축제의 핵심 콘셉트는 ‘The RED’다. Romantic(낭만), Excitement(신남), Delight(기쁨)를 각 공연과 프로그램에 녹여내 축제장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축제 첫날인 17일 로맨틱 컨셉에 맞춘 ‘The Romantic 로즈 콘서트’가 열린다. 가수 린과 미스트롯3 곡성 출신 나영이 장미축제의 첫날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18일 ‘The Romantic 로즈 블.로.썸’ 공연에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부른 하이키와 곡성군 홍보대사 파스텔걸스가 출연하는 아이돌 스페셜 콘서트가 열린다.

또 화려한 퍼포먼스 뮤지컬 로즈 갈라쇼와 첼로와 영화음악의 콜라보 공연 ‘뮤지 워드 로즈’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19일에는 역사이팅 콘셉트에 맞춰 ‘The Exciting 장미꽃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대체불가 듀엣 노라조를 비롯해 차세대 트롯대세인 곡성 옥과 출신 한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17일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막한다.

곡성군 제공

현 등이 무대를 꾸민다.

평일에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33개팀 그리고 곡성 출신 가수들이 장미축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무대를 함께 한다.

25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모르 트루 투니잇’ 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김연자, 문희옥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인 곡성 출신 이수호가 출연한다. 축제 마지막날인 26일에는 ‘The Delight 로즈 갈라쇼’가 열린다. 곡성군 홍보대사 진시몬, 수와진 밴드 그리고 락페스티벌의 디바 조유진의 ‘체리필터’가 맡아 화려하고 신나게 축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곡성군은 ‘게릴라 왈츠’, ‘신 장미풍류’ 등 기획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

다.

축제 기간 내내 메인경품 이벤트 ‘행운의 황금장미를 찾아라’가 펼쳐지며, 붉은색 옷을 입고 SNS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드레스 코드 RED’도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축제장을 섬진강기차마을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곳곳에 프로그램을 배치해 축제의 확장성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10만여 명의 밀밭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섬진강동화정원 첼로 버스킹 영상과 월드요들페스티벌국제음악회 참가자 연주 영상도 제작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개소한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장미축제에 맞춰 페이퍼 플라주 ‘마음꽃’과 보헤미안 마림바 공연,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축제장 방문객을 위하여 철저한 주차 안내 및 교통통제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는 방문객이 밀집되므로 장미 본연의 아름다움과 향에 집중하고 싶은 분은 주말은 피하고 평일, 특히 오전에 장미축제장을 즐기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난 2월 콘텐츠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아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됐다. 올해 전남도 대표축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동안 섬진강기차마을은 1일 최대 방문객 4만5000명, 총 방문객 수 22만 9000명을 기록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세계장미축제 대비 위생점검 ‘강화’

곡성군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 점검 강화와 부당 요금 근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캠페인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식품 원재료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관리, 시설기준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음식가격표시 여부, 식품위생업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타 시·군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미축제장의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참

여 업소,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고 메뉴판대로 가격을 받으며, 친절할 서비스 제공하고 음식 요금 인상을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장미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장미축제는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추진으로 축제장 내 먹거리 존에 대화용품 식기류 공급하고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참가업체에 위생마스크, 앞치마, 소독제 등을 배부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및 불친절업소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곡성군보건원 위생팀(061-360-8940~1)로 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K곡성멜론’ 올해 첫 출하

곡성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당도 높고 품질 우수... 해외 수출

곡성군의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곡성멜론 주식회사에서 출하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명품 멜론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멜론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효율이 높은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부터 최종 선별 작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며, 약 300개 농가가 122ha 규모로 재배해 곡성군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선별에 필요한 포장재, 비파괴 공동선별기, 유통물류비, 수출물류비 등을 집중 지원하며 6차 산업화 인프라 조성에도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 결과 지난



곡성멜론이 지난 13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곡성멜론 주식회사에서 출하됐다.

곡성군 제공

2022년도에 곡성멜론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다.

뿐만 아니라 ‘K곡성멜론’ 브랜드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남아에 76톤, 27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여 곡성멜론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곡성멜론 명품 브랜드 생산에 힘써주시는 농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곡성멜론 명품 브랜드를 뛰어넘어 K 명품 브랜드로 발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